



# 다시, 절망의 시대 그의 詩가 그림다

**김남주 시인 20주기 추모문화제**

## 20일 생가 있는 해남서 26일엔 학교 다닌 광주

“아 애휴어라 김남주. 그 순정하였으므로 불꽃이었던 농군의 아들과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뿌연게 흐려오는 돋보기의 알을 뒤으며 붓을 놓나니, 죽은 사람을 불러 일으켜 함께 한 번 웃지 못하는 것이 다만 한스럽고너.” (김호석의 ‘역사의 이름’ 중)

바쳤던 ‘혁명 시인’이기도 했다. 김남주(1945~1994) 시인의 20주기를 맞아 그의 문학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문화제가 그의 생가 있는 해남과 학창 시절의 추억이 서린 광주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해남에서는 20일 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운) 주최로 김남주아카이브전이 예정돼 있다. 해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아카이브 전에는 김남주 생애를 사진과 영상, 유품과 육필시로 만난다. 이날은 한국작가회의 시인들과 가수



가수 안지환



광주 중외공원에 있는 시비와 흉상

## 해남-김남주아카이브전, 안지환 참여 포엠콘서트 광주-5·18기념공원에서 ‘내가 김남주다’ 시극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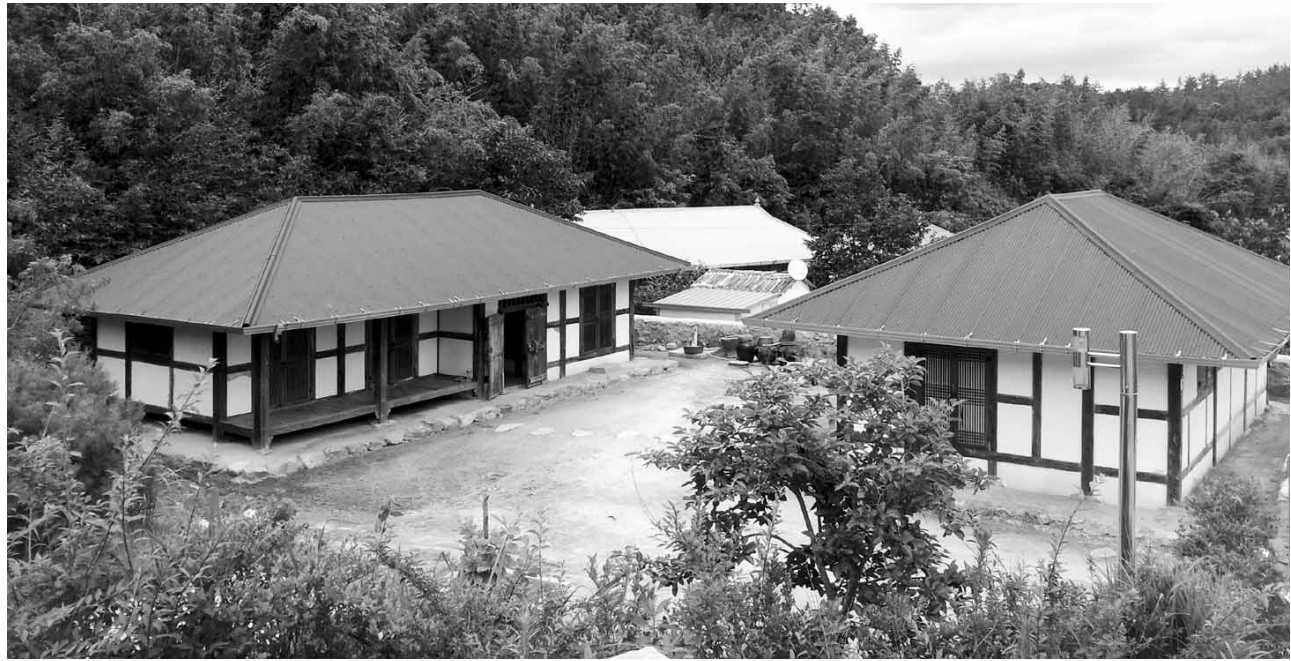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가난한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 이 글귀는 병상의 김남주가 수목화가 김호석에게 써준 글귀라고 한다. “굳은 신념으로 망설임 없이 써내려간 힘찬 필치”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로 고착화되는 오늘의 세태를 예견한 듯하다. 여수선한 시절, 안병하지 못한 시절, 혁명 시인 김남주의 시와 그의 울곧았던 생애가 떠오르는 날이다. 김남주는 폭압의 시대를 온몸으로 밀고 나간 ‘전사 시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단을 일깨운 민족시인이자 청춘의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며, 반독재 투쟁에 일생을

안지환 등이 함께하는 포엠콘서트도 열린다.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한국작가회의 각 지회 회원들의 추모공연이 열리고 추모시집 발간 기념행사도 펼쳐진다. 김남주 시를 함께 읽고 영상과 노래로 회고하는 ‘김남주를 읽는 밤’(10월 2일)도 예정돼 있다. 김남주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김경운(해남고 교사) 회장은 “김남주 시인은 한국문학이 지향했던 화두를 뛰어넘는 역동적인 시관을 견지했던 민중시인”이라며 “그의 정신을 선양하고 순결했던 영혼을 기리고자 추모문화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주의 의로운 님이 살아 숨 쉬는

빛고을에서도 그의 시혼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시인은 1972년 전남대 영문과에 재학 중 전국 최초로 반유신투쟁 지하신문 ‘함성’을 제작했으며 그로 인해 투옥과 제적을 당했다. 26일 광주전남작가회의, 5·18기념제

단, 광주민예총 주최로 5·18기념 공원(야외 분수 광장)에서 ‘내가 김남주다’를 주제로 열리는 추모행사는 시낭송, 시극, 창작 판소리 등이 공연된다. 특히 이날에는 시극 ‘내가 김남주다’가 공연이 예정돼 있어 살아 돌아오는 시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작가회의와 놀이패 신명, 극단 토박이, 광주민족미술인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이번 시극은 시인의 작품을 주요 대본으로 줄거리가 짜여져, 남다른 의미를 준다.

또한 시인의 친구가 들려주는 김남주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고등학교 친구 이강 씨가 나와 ‘돌멩이 하나’를 주제로 시인에 대한 추억을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모두가 시인의 대표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합창하며 촛불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으로 문화제는 막을 내린다. 조진태 작가회의 회장은 “김남주 시인은 남도가 배출한 가장 뜨겁고 정의로운 시인이었다”며 “20주기 추모제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던 시인의 넋을 반추하고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4137-4462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고 김남주 시인 생가.

## 토요 그림경매, 여수 찾아갑니다

19일 GS칼텍스 예울마루 한국화 등 총 38점 선보여

전남지역의 대표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은 토요그림경매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술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순회 특별경매 추진으로 지방 미술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19일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리는 2014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에 참가해 특별경매(오후 5시·소극장)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까지 광주시와 순천시, 무안군 등에서 토요그림경매 홍보를 위한 순회 특별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 특별경매는 2014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추진위원회(위원장 강중열)와 GS칼텍스 후원으로 추진되며,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은 지난 2006년부터 격년마다 개최되는 전남 대표 미술축제로 세계 근현대미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다.

경매작품은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 20점(한국화 13점, 서양화 2점, 문인화 2점, 서예·서각 3점)을 비롯해 소인쇄 작가 등 국내 초청작가들의 작품 6점, 여수 지역 작가들의 작품 11점, 독일 작가인

필립 슈마허의 작품 1점 등 총 38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특별경매에서 선보이는 작품 중 18점은 개인 전·전시회 판매가 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경매시작가를 만나볼 수 있다. 특별경매에서 선보이는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또 국내외 전시 및 국전 입·특선에서 수상한 유망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며, 미국 등에서 개인전 및 초대전을 여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작품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재순, 강금복 작가 등의 작품도 출품된다.

한편 남도예술은행은 전남지역 거주 전업 미술작가들의 창작지원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설립됐으며, 지난 2006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진도 운림산방에서 토요그림경매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560여명의 작가를 선정해 총 3349점의 작품을 구입했으며, 9월 현재 422회 토요그림경매를 통해 2969점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 문의 061-280-58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중열 작 ‘실동백’

## 남도청소년인터넷 백일장 김다이·김기정 대상 수상

문학춘추작가회가 주최한 제16회 남도청소년인터넷 백일장에서 광주 동아여고 김다이 양과 영광 해룡고 김기정 양이 대상인 광주시 교육감상과 전남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 고등 최우수상 박수화(살레시오여고), 우수상 노은지(수피아여고), 초등 대상 문형준(동문 초동), 중등은 입상작 없음.

▲전남 고등 최우수상 고권욱(담양 창평고), 우수상 한도경(순천 매산고), 중

등 대상 김민경(영암 삼호서중), 최우수상 이상연(목포 옥암중), 우수상 김승희(영암 삼호서중), 최주량(광양여중), 초등 대상 안효빈(영암 삼호초동), 최우수상 김보아(순천 왕지초동), 우수상 정영훈(목포 신흥초동), 입재원(영암 삼호초동).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11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3612-2757.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p>CHANEL</p>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13</p> <p>IPTV 18</p>	<p>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p> <p>www.ichannelA.com</p>
---	--	---	---------------------------------	---